# 추석 성수품 대부분 가격 '상승'

## 상차림 비용 추가 지출 불가피… 사과 · 단감 · 한우 작년보다 비싸

'추석 장보기가 고민 된다'는 주부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이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추석 성수기를 맞아 조사 발표한 주요 농축산물 소비·출하 가격전망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지출이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례를 준비하는 가정이 74.4%로 조사된 가운데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과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가격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도 출하량은 많지만 대과(大果) 부족으로 가격이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감도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축산물은 추석을 맞아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한우를 제외하곤 작년보다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성수기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오른 1만9000~2만원(1등급 1kg 기준)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는 도축 마릿수 증가로 작년보다 9~15% 낮은 4100~4400원(탕박 지육 1kg 기준)으로 나타났다.

부침용으로 소비가 많은 계란은 추석 성수기 산지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1200~1300원(특란 10개 기준)으로 전망됐다.

추석 햅쌀의 경우 산지유통업체 판매가격은 원료곡 가격 하락으로 작년보다 낮은 3만9000원(20kg 기준) 내외로 예상됐다. 채소는 고랭지 배추와 무 작황 부진으로 추석 성수기 출하량이 감소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성수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5830원보다 크게 오른 1만8000~1만9000원(상품 10kg기준)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도 작년 같은 기간 7580원보다 2배 이상 오른 1만8000~1만9000원(상품 18kg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밤, 건대추 소비지 가격은 작년 성수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밤 가격은 햇밤의 출하 지연과 저장물량 부족으로 작년 성수기보다 2~6% 높은 7500~7800원(상품 1kg 기준)으로 조사됐다.

건대추 가격은 최근 3년간 추석성수기 상승폭과 산지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작년 성수기보다 9% 높은 1만8400원(상품 1kg 기준)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81.9%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석물가 상승으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를 상대로 조사한 추석 음식 구입 예상 지출비용은 30만원 대가 38.5%로 가장 많고, 20만원 대가 37.8%, 40만원 대 10% 순서로 나타났다. /뉴시스

**분주한 한과업체 직원들**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오후 선물·제수용 한과를 만드는 세종시 전동면의 세종한과 직원들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호남 도로건설 1조9천억원 투자

## 익산국토청, 향후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향후 5년간 호남지역에 1조9232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조9232억원을 투입, 217km도로를 건설한다.

익산국토청은 이에 따라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행사지원, 병목지점 개선 등 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북 부안군 해안면~고창군 흥덕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무주군 설천면, 전남 순천시 송광면~순천시 주암면 3개소(49.7km)에 6412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북 군산시 서수면~익산시 왕궁면, 정읍시 농소동~하모동 2개소(20.0km)에 4096억원을 투입해 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도·국지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북 고창군 해리면~부안면, 완주군 소양면~진안군 북위면, 전남 담양군 무정면~곡성군 오산면, 신안군 압해면 신장마을~복용마을 등 14건(147.6km)에 8724억원을 투입해 급커브, 급경사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임회면 국도건설사업을 우선 착공하고 오는 2017년도에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장수군 장계면, 전북 고창군 심원면~아산면, 전남 담양군 무정면~곡성군 오산면 국도건설사업을 착공하는 등 향후 5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호남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반드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4차 5개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따라잡아라" 폭탄 세일

##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열려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33일간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부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확장판이다. 유통, 제조업계뿐 아니라 관광, 문화업계까지 동참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다음날 금요일을 뜻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최대 규모 세일 행사 기간으로 2000년대 들어 자리잡기 시작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Black'(검다)이라는 표현은 상점들이 장부에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를 기록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1960년대 필라델피아에서 추수감사절 다음날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비유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Holiday Season)에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시기에 이뤄지는 소비는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관련 업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상을 통해 연말까지 매출 추이를 예측하기도 한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에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에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의 온라인 매출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래 액수는 44억7000만달러로 약 5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도 이런 '매출 폭발'이라는 성과를 보이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92개 업체, 3만4000여개 점포 등이 참여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의 매출은 2014년 같은 기간보다 24% 급증했으며, 매출증가액은 2669억원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의 매출 증가액도 전년보다 28.9% 늘어난 2161억원이었으며,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 유통전문업체의 매출 증가액은 20.9% 늘어난 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치로만 살펴본다면 지난해 한국의 '블프'는 첫 개최치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미국 블프 행사의 경우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게는 60%에서 최고 90% 수준의 할인 상품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반면 '코리아 블프'는 정부의 주도하에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할인 폭에 한계가 있었다.

직매입이 안되는 백화점 등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상 80~90% 할인보다는 20~30%에 그치는 세일을 하거나 1+1 행사가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름만 '블랙프라이데이'일뿐 실상은 정기 세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론도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지난해엔 빠져있던 가전·패션 등 제조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 기간을 앞두고 지난 30일부터 일주일간 '소비자가 기대하는 할인품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내수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할인 품목의 종류와 할인폭 측면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가전·패션 등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차원의 다채로운 행사로 소비자와 업계가 만족할 만한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주택 전-월세전환율 4개월째 제자리

전국의 주택 전세전환율이 4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동일단지·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 읍면동·유사면적)의 유사한 월세매물 중 전월세전환율이 높을 수록 월세부담이 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신고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지난 3월부터 6.8%를 유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 주택종합 전환율은 수도권 6.3%, 지방 8.0%로 지난달과 같았다. 세종이 5.8%로 가장 낮고, 경북이 9.8%로 가장 높았다.

전체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8.5%, 연립다세대주택 7.1%, 아파트 4.9% 순으로 전환율이 높았다. 아파트는 지난달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0.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단독주택(7.8%)·연립다세대(6.6%)·아파트(4.6%), 지방은 연립다세대(9.9%)·단독주택(9.9%)·아파트(5.7%) 순으로 전환율이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 전환율은 신규입주물량 증가,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 등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와 준전세 계약 증가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아파트는 132개 시군구 주요지역 통계수치를 분석한 결과 충남 공주가 가장 높은 8.0%로 서울 송파 3.9% 보다 4.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LH, 전국 218개 단지 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218개 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5일과 19일 218개 국민임대단지 총 1만4457세대의 예비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76개 단지 5571세대, 지방 142개 단지 8886세대다.

LH는 지난해부터 매 분기 마지막 달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 예비 입주자를 통합 모집하고 있다. 이전 수시 모집 때는 지역·단지별로 신청일이 달라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15일이 추석 연휴에 포함돼 5일과 19일을 통합해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총 자산 2억1900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시행 전 마지막 모집이다. /뉴시스

## 유통업계, 착한 소비 확산

유통업계에 착한 소비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이 단체나 기관에 물품과 기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 대신,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능동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매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기업의 주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파크도서는 루게릭 환우를 위해 승일희망재단과 함께 착한 소비 이벤트 'With ICE, With YOU'를 진행한다. 5만원 이상 도서 구입 시 I-Point를 사용해 기부팔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루게릭요양병원 건립기금을 위해 사용된다.

도미노피자는 피자를 주문하면서 국내 환아 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착한 소비에 나서고 있다. 피자·사이드디시·음료 등으로 구성된 희망나눔세트를 구매하면 희망나눔기금이 적립된다. /뉴시스